

대한민국 원자력발전과 전력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전력기술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전력플랜트 분야 Global Top 5 EPC 기업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KOPEC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래를!

Global Power ON _ 한국전력기술, KOPEC

Global Top

5



가자!
5천만의 자부심을 넘어
70억의 에너지로...
UAE 원전수출, KOPEC이 함께 합니다

KOPEC family



꽃처럼

꽃보기 쉽잖은 세상

꽃처럼 영그는 끝속에

한송이 피어나 봄꽃은

꽃봉우리 희망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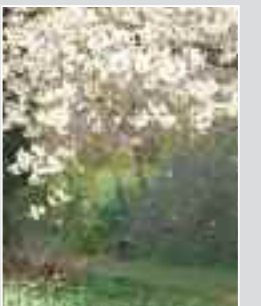
CONTENTS

- 04 **특별기고** | KOPEC의 세계시장
- 06 **포커스** | 2009년 실적 최대 매출 및 당기순이익 실현 외
- 10 **ISSUE** | CEO 키워드 분석
- 12 **새얼굴** | 2010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 20 **Teamwork** | 정보전산실 전산지원팀
- 24 **Benchmarking & Globalization** | 미국 지구물리학회(AGU) Fall Meeting을 다녀와서

- 26 **창의력 게임** | 스트레스 해소법
- 28 **도전 IT전문가** | 이 사진 어디서 찍었더라?
- 30 **일하며 즐기며** | CarDIY
- 32 **우리가족 만세**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처 양천우 팀장 가족
- 34 **With Partner** | 홍지기술산업
- 36 **기자칼럼** | '아바타'가 물고온 3D 열풍

- 38 **테마기획-풍경속으로** | 유장한 풍류 속에 선운사 동백은 피고지고, 고창
- 42 **생활과 과학** | 태평양 한가운데 한글지명이?
- 44 **웰빙 KOPEC** | 물이 아닌 기호음료
- 46 **지상전시회** |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
- 48 **건강 100세** |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려면
- 50 **KOPEC NEWS** | 신성장사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플랜트본부 워크숍 개최 외
- 53 **Inside Outside** | 인사동정 외
- 54 **퀴즈한마당** | 숨은그림 찾기 외
- 55 **KOPEC인의 핵심가치** | 목표를 향해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꽃소식이
봄을 알린다



KOPEC의 세계시장



정석화 / 미국 유타대 교수



지구온난화와 탄산가스 문제 등으로 전세계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녹색혁명을 논의하던 코펜하겐회의가 끝나고 재생에너지기술이 장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위험성의 대명사처럼 꺼리던 원자력

발전이 이제는 청정에너지로 바뀌어져 전세계가 신원자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전력과 KOPEC이 국내외 원전시장에서 수주해 놓은 액수만도 UAE 원전을 비롯하여 600억달러가 넘는다는 해외뉴스가 있고 상당중인 설계 시공 및 기술이전 계약만도 터키, 인도, 요르단, 핀란드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있는 전력회사까지 합치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KOPEC을 한국전력에서 스핀오프 하여 다국적기업으로 성장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KOPEC을 다국적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국제적인 원자력규제의 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겸하여 세계적인 두뇌들을 참여시켜 진정한 세계최고의 설계용역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년간 세계시장규모를 예측해 보자. 그동안 신규 원전발전을 전면 중단했던 미국이 2030년까지 200GW로 늘릴 계획을 에너지장관 스티브추 박사가 발표했고 IAEA의 통계로 세계총합계 추가설비가 330GW가 넘을 것이라 발표가 있었다. 또 노후된 기존설비를 NRC가 허가연장하는 용역작업만 해도 미국내에서만 20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다.

원전발전의 수요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문제는 부품 제작 및 조립건설비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여기에 우리의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각종 제작업체와 용역회사 및 현대건설 등의 한국업체가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금융업체가 원전전문투자업체로 성장할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KOPEC은 일찍이 미국의 Sargent & Lundy 사의 기술을 그대로 이전받아 세계적인 설계용역회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세계시장에 진출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업체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고비도 많이 있다.

20여년전의 이야기다. 일본 굴지의 철강가공 제조업체가 미국의 CBI 사를 찾아와 초저온 LNG 저장탱크의 기술이전과 그 인증을 줄 수 없느냐는 일본인 특유의 정중한 자세

로 요청해 봤지만 그 대답은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기술이전 인증을 줄 것 같으냐?”는 한마디로 회의는 10분만에 끝나 버렸다. 당시만 하더라도 초저온 LNG 저장탱크 설계 시공은 미국회사의 인증 없이는 그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금의 원자력설계용역과 부품제작 및 건설은 그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있으므로 IAEA나 NRC의 인정을 받는 것이 첫번째로 할 일이다.

이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터키와 인도의 원전거래에 절대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각종 국제적인 제재를 거론하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또 러시아의 국영원전투자회사의 중역인 “데리파스카”가 미국이 원전발전 및 설계용역을 너무 확장시켜 정치적인 불안상태를 고조시킨다는 언급이 있었고 미국의회에서도 폐연료저장문제와 더불어 기술이 제삼국으로 확장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러시아 회사들을 참여시켜 KOPEC의 설계라면 믿을 수 있다는 국제적인 확신만 가지면 고객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KOPEC이 다국적기업의 절대주주로 경영하려면 자체의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두뇌들을 앞서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이론을 실제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고 용역회사가 믿고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빠른 시일 안에 명확하게 제공해주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원자로에서 분출하는 열량 압력 진동주파수 등의 자료가 분명하고 끝까지 일관되어야 한다.

또 우리 엔지니어들은 재료역학 탄소성의 기본이론은 물론이고 파이프의 진동, 지진, 풍력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역학이론과 Fourier Transform의 기초지식이 없으면 회의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이해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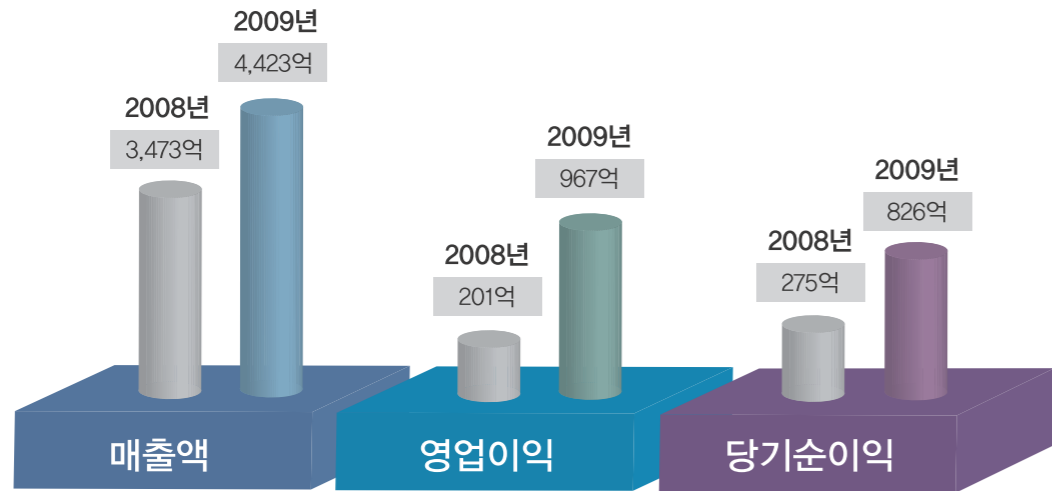
가 없다. 이런 기초과목을 사내에서 영어로 진행시켜 학점도 주고 수료인증도 주는 제도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침이다.

또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미국기계학회 원자력장치 설계시방서(ASME SECTION III)이다. 이는 마치 법관들이 법조문을 기억하고 있듯이 거의 한줄도 빠지지 않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원전시설설계 및 부품제작은 이 ASME로 통용되고 있고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 플랜트의 시스템을 총망라한 시스템소프트웨어를 확장개발해 기본설계방침부터 실제설계 부품제작설계 및 허가 품질관리, 조립 및 건설과 Turnkey 및 운영 유지관리와 수리 등을 총망라한 자료들을 어느 때든지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인정을 받지 않고 제삼국으로만 배회하면 KOPEC의 기반이 확고해지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2009년 실적 최대 매출 및 당기순이익 실현



2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경영공시를 통해 2009년 경영실적을 발표하였다.

회사는 작년 한해 ▶ 매출액 4,423억원 ▶ 영업이익 967억원 ▶ 당기순이익 826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지난 2008년 대비 매출액은 27%, 영업이익은 381%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01%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 성공적으로 IPO를 실시한 이후,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당 1,081원의 배당(배당성향 50%)을 결의하였다.

회사가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거둔 것은 신울진원자력 발전소 1,2호기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 삼척화력 발전소 1,2호기 종합설계와 같은 대형 사업의 수주성공

과 함께 ESCO(에너지절약사업) 준공 및 신규수주 등과 같은 신에너지분야로의 사업분야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사업수주활성화와 함께 효율경영 및 비용절감 노력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대폭 향상되었다.

회사는 2010년에도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신규사업 수주와 기업 브랜드화, 글로벌 진출 강화를 통해 지난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UAE 원전 설계로 해외 원자력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으며, 요르단, 터키 등 한국전력 주도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그리스 연구용원자로 설계개선 사업 수주로 연구용원자로 분야 기술 수출을 이루어 낸 만큼 올해는 요르단, 네덜란드 등의 해외 연구용원자로 사업의 추가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세네갈과 기술교류, 에너지 분야 MOU 체결



2월 3일 세네갈과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에너지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양측을 대표해 안승규 사장과 카림와데 세네갈 장관(국제협력, 국토 및 교통 3개부 총괄)이 공동 서명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간 ▶ 상호 정보교환 ▶ 수력, 화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지열, 송변전 개발 협력 ▶ 전문 인력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기술교류 ▶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카림와데 세네갈 국토부 장관은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발전소 설계업무 등에 있어 KOPEC의 세계적인 위상을 실감하였다고,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네갈 에너지사업에 KOPEC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250MW급 화력발전소 1기 건설

에 KOPEC이 참여함으로써 양측간에 전문기술 및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제안하였다.

안승규 사장은 “앞으로 세네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 전기 송변전, 기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개발을 위해 많은 정보와 경험 및 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것”이라며 “이번 MOU 체결이 양국간에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MOU 체결로 세네갈과 협력을 강화하고, 빠른 시간내에 주한 세네갈 대사 및 실무진과의 세부 미팅을 통해 MOU에 포함된 양국간의 관심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번 MOU를 계기로 서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입 인턴사원 경영진과 대화의 장 개최



2010년 신입 인턴사원과 경영진의 대화의 장이 2월 10일 분당 정자동 올리브 부페에서 개최되었다. 사장 이전 경영진과 신입 인턴사원 59명이 참여한 자리에서는 3주 간의 합숙교육 동안의 교육결과에 대한 영상보고를 시작으로 경영진 격려사, 신입 인턴사원들의 소감 및 사명서 발표, 격려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만찬 이후에는 신입 인턴사원들이 직접 개사한 비전 송을 조별로 발표하면서 2020 New Vision의 실현의지를 나누었으며, 'KOPEC 기업문화혁신전략'과 '해외사업진출방안'을 주제로 신입 인턴사원 대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안승규 사장은 "신입 인턴사원들의 활기찬 모습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신입 인턴사원이 회사 발전과 비전 달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2010년 신입 인턴사원들을 격려했다.

3주간의 합숙교육을 훌륭히 마친 신입 인턴사원들은 앞으로 사내 전산화 교육, 발전소현장견학, 엔지니어링 기본교육 등을 거치게 되며 회사는 이를 통해 신입 인턴사원들이 하루빨리 적응하여 조기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



춘삼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꽃피는 봄을 맞아 지난달 민속 명절 설을 앞두고 KOPEC 가족 여러분에게 이런 당부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명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고향이지요. 명절에는 대부분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이야말로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푸근한 정이 물씬 풍기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생명의 원천지이기도 하지요. 우선 고향 하면 맨 먼저 명절 음식을 정성껏 푸짐하게 준비해 놓고 도시에 나가있는 자식들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부모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모두들 지금 당장 고향을 향해 달려 가고픈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명절 하면 우리 남자들은 좋지만 여자들은 특히 며느리들에게

는 아주 반갑지 않은 날이지요.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요즘 TV에서는 며느리를 도와주지는 공익광고마저 등장하더군요. 글썽 시대의 아이러니라 해야 할지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쉬는 날에는 피곤해 하는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줄 때가 있는데 결코 쉽지는 않더군요. 가끔 명절이라도 토끼 같은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우리 남편들이 옷소매를 걷어 부치고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해 봅시다. 가장 힘든 마늘과 양파도 까주고 파도 썰어주고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가장의 달라진 모범상을 한번 멋지게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차원에서 설날과 추석 최소한 일년에 두 번만이라도 아내를 여왕으로 모셔 보면 어떨까요 싶네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 아내로부터 '당신 멋져 여보 사랑해' 소리가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다 아씨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아주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넉넉한 설이 됐으면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화창한 봄의 계절에 가족들과 모조록 즐거운 자리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Global Power EPC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임감사 김 주 완

CEO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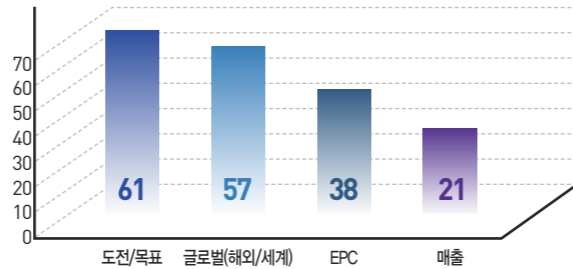
제2차 확대간부(경영진, 처/실장 및 전 PM)회의 발표자료 중 발취

경영기획처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오바마 미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적도 있듯이 CEO의 언어 사용을 분석하는 것은 조직 진행방향을 잡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단어로 형상화되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사장 취임 이후 올 1월말까지 8개월 동안 각종 행사 및 회의시의 발표 문건들을 통하여 CEO 키워드 분석을 시도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빈도가 특히 높은 키워드 25개를 추출하여 이들 간의 공통요소를 바탕으로 그룹화를 하였다. 이러한 그룹 키워드를 가지고 대상 문건들을 다시 검토하여 단순 사용과 유사 사용을 더해 빈도수를 최종적으로 집계하여 순위를 산정하였다. 물론 정량적인 분석이 정성적인 중요도를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취지에 따라 단순하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CEO가 즐겨 쓴 키워드를 꼽아보았다.

결과는 옆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전/목표가 총 61번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동적으로 알려진 일반 공기업 문화를 탈피하여 목표 의식을 지니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올 신년사의 경영화두인 '도전과 품격' 도 같은 맥락이다.

CEO Keyword 현황



순번	키워드	총계	CEO의 경영의지
1	도전/목표	61	• 목표의식을 가진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자세의 필요성 강조 • 연중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간부회의에서 다른 키워드보다 두드러짐
2	글로벌(해외/세계)	57	• 해외 시장 진출에의 매우 강력한 의지 표현 • 세계 수준의 회사에 대한 비전 제시 • 연중 지속적으로 강조
3	EPC	38	• EPC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 표현 • 연중 계속 강조
4	매출	21	• 계량목표 달성의 중요 지표로서 매출을 중시 • 연설보다 경영회의 및 간부회의 등 직접 업무와 관련하여 빈도가 높음
5	최고(일류)	17	• 회사의 지향점인 "세계 최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도전적 목표임을 강조
6	기술력	15	• 회사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도 기술력임을 역설 • 우리의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
7	리스크(위기)	15	• 사업확대, 글로벌 진출에 있어 성공 요인으로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인식 • 대외환경 위기 시 방어적 자세보다는 적극적 자세로 대처 필요
8	고객	13	• 기업으로서 고객가치 실현을 중시
9	녹색(지속)성장	12	• 정부 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발전 및 사업다각화 측면에서의 필요성 강조
10	윤리경영(청렴)	11	• 주로 공식 연설문에서 경영상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음
11	공유/공감	9	• 전 직원의 비전 및 목표 공유가 있어야 함을 역설 •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워드
12	기업문화(노사)	9	• 경영상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기업문화 특히, 건전한 노사문화를 통한 기업발전 중시
13	인력	8	• 우리회사는 기술회사로서 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 특히 신입사원 채용, 퇴직인력 활용, 자기개발 등에 많은 관심 표명
14	역량	7	• 역량강화가 회사 경쟁력의 제고에 중요
15	품격	6	• 국격 상승에 걸맞게 회사 격 자체의 업그레이드 필요
16	사무환경	6	• 쾌적한 근무환경이 업무능률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견해
17	성과(능력)	4	• 인사 및 보상에 있어서 성과와 능력을 중요 고려사항 인식

그 뒤를 이어 글로벌(해외/세계)이 2위를 차지하였다. 생존을 위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3위는 EPC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KOPEC 2020 New Vision 선포로 이미 우리의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전/목표, 글로벌(해외/세계), EPC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연중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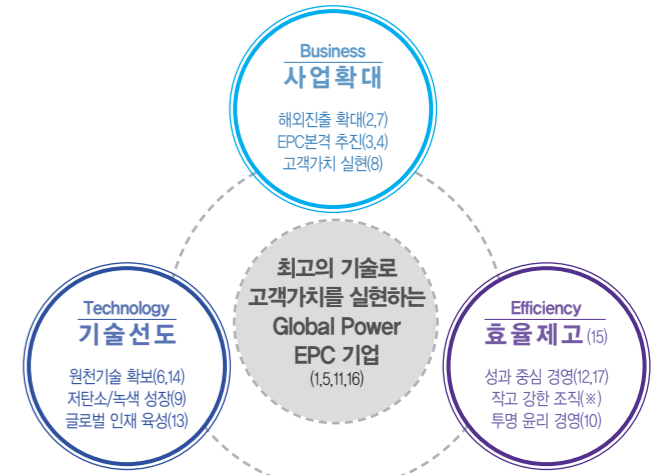
4위는 매출이다. 매출이야말로 우리회사의 실적과 성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지표이다. 즉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주액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대외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고 다른 키워드와 달리 직접 업무와 관련된 발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 밖의 주요 키워드로 5위인 '최고'는 도전/목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우리의 도전이 지금은 비록 글로벌 TOP 5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최정상이기 때문이다.

6위는 우리의 자랑인 기술력으로 기술력을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담금질해야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EPC와 세계시장으로의 사업확대 및 시장확대를 위해 리스크 또한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위기 자체를 도전의 대상으로 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까지 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 키워드도 익숙하고 이미 예상한 바라고 생각된다. 다만 11위의 공감/공유를 한번더 눈여겨보았으면 한다. 공감/공유는 최근 들어 특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분석 내용을 사보에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기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첫째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 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공감해야 하며, 이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통해 목표달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취임 약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CEO의 의지가 전 직원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엿보인다. 품질안전환경처 「2009년도 내부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서 '회사비전공유' 부문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 전 직원 모두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CEO Keyword 분석결과



그밖의 키워드를 보면 단순히 목표를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기보다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인 우리회사에서 각 인재들이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조건 개선 및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 자긍심을 위한 회사의 품격 향상 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치를 보여주는 주가가 2월 현재 원자력 테마주 중 대장주의 위치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2월 중 일부 부서들의 분당별관 이주와 이에 따른 사무기기 교체, 공간 확대 등 사무환경 쾌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사장 경영방침에 대비시켜 본 것이 위의 그림이다. 괄호 안의 숫자들은 키워드 순번을 말하며 각 키워드가 우리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에 골고루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위 도전/목표는 우리회사의 전체 지향점을 보여주는 비전과 맞닿아 있다. 다만 '작고 강한 조직' (※)의 경우 이미 3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CEO는 우리회사의 미래를 비전과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일관된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비전과 경영방침을 공유하여 각자 및 부서의 지향점으로 삼아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0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신입 인턴사원 59명이 1월 4일 입사식을 갖고 KOPEC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과 면접 등 세 차례의 관문을 뚫고 새롭게 KOPEC인이 된 이들의 유쾌하면서도 비장하며 재기발랄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해 신입사원의 면면을 엿보고 '비전, 전략실현을 위한 팀워크 교육' 등을 이수하며 KOPEC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교육 소감을 소개한다.



고민성(29, 전자공학)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인드로 생활해 누구라도 아침, 점심, 저녁, 제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환(30, 전기전자공학) Ultra Active Engineer. 사업관리기술처 UAE team 고봉환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해 KOPEC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박영신(28, 기계정보공학) 긍정의 힘을 믿는 Positive DNA의 소유자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KOPEC의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권대일(28, 기계공학) 배치된 부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되 신입 인턴사원으로서의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24, 컴퓨터공학) KOPEC의 막내입니다. 연수기간에 동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동료애와 애사심을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근호(30, 기계시스템공학) KOPEC 야구단 영입 0순위. 야구를 사랑하고, KOPEC을 사랑합니다.



김남철(32, 산업시스템공학) 문은 서로 다른 공간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항상 열린 문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익(29, 전자공학) 젊은 패기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조금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김병제(30, 물리학) 술은 조금만 먹고 피 토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김상민(28, 구조공학)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1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머지않아 KOPEC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철(29, 환경공학)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KOPEC과 저 모두의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김선영(28, 호텔경영학) 진정한 KOPEC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치겠습니다.



김성두(27, 전자전기공학) 이름의 이니셜로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Korea power engineering just got the biggest potential because many of fresh guys will be a general Specialist. I believe that is our Destiny so just see me and I will show you.



김성호(27,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팀의 성공은 물론, 회사의 성장, 나아가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김우진(29, 원자력공학) 뛰어난 역량을 가진 회사에 입사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KOPEC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김재호(30, 전자전기컴퓨터공학) 긴 코스의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볼 생각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종섭(29, 기계공학)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항상 도전할 줄 아는 사원으로서 꼭 Specialist가 될 것입니다.



김홍균(29, 전기전자전파공학) Listen to my heart beat for U, 쿵쿵쿵! 들리시나요? KOPEC의 일원이 되었음에 심장이 뛭니다. 맨유의 산소탱크 박지성처럼, KOPEC의 산소탱크가 되겠습니다.



김희명(27, 기계공학)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사의 명품 인재가 되겠습니다.



나형민(29, 화학공학)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러나 결코 뒷걸음 치지 않는다"는 링컨의 말처럼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재중(30, 정보통신공학) KOPEC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선배, 동료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영(28세, 기계공학) 6호골 넣은 박주영? No! 웃음 많고 굳센 아이!



노지현(29, 항공우주공학) 파릇파릇한 신입사원 33기의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점도,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같은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박창민(26, 기계공학) KOPEC에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박문우(26, 소방학) 패기와 열정을 가진 신입 인턴사원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석(31, 건축공학) 35년 동안 선배들이 물아온 KOPEC버스! 이제 저 박호석과 33기들이 합세해 세계 최고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박성준(27, 기계공학) KOPEC의 일원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선배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KOPEC의 신입사원답게 열정적이고, 패기 있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준걸(29, 지구환경과학) 2010년, 최고의 운은 훌륭한 선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배들처럼 최고의 KOPEC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연(27, 기계정보공학) KOPEC의 미소천사 박승연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통해 UAE 원전 2탄! 3탄!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설윤주(25, 건설환경공학) 2010년, KOPEC과 함께 기대되는 유망주, 빛나는 신입 인턴사원입니다.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열정을 태웠습니다.

양준석(29, 기계공학) 원자로설계개발단장과 이름이 똑같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각종 운동대회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이병화(28, 시스템경영공학) “한국전력기술? 한전?” “아니, 한국전력기술, KOPEC!” KOPEC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보다 더 유명한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운(27, 전파공학) Emergency 상황에 놓인 응급환자 KOPEC에 긴급 수혈된 Fresh Blood 오대운입니다.



이상철(27, 안전공학) KOPEC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신입 인턴사원의 영향으로 계속 맑은 날이 되겠으며, 사무실 분위기도 또한 쾌적하겠습니다.



오성은(28, 원자력공학) 원자력기술처에 떠오르는 다섯 개의 별 오성은입니다. 앞으로 KOPEC의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30, 기계시스템공학) 열심히 일하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보다는 먼저 고객을 생각할 줄 아는 KOPEC의 핵심주역이 되겠습니다.



유동현(27, 토목공학) 시기면 뭐든지 합니다. 원자력이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이성현(33, 전자전기공학) 33기 유일한 유부남으로 책임감, 순수함, 약간의 느끼함, 킬킬함을 가진 5살난 딸의 아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현(30, 사회환경시스템공학) 꼬마시절부터 키워 온 KOPEC인의 꿈,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크고 넓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엽(29, 국제통상학) 거북이란 별명처럼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2020 매출 10배, 주가도 10배 키우겠습니다.



이강규(34, 동양사/국제학) 天生我材必有用. KOPEC에서 한껏 능력을 펼쳐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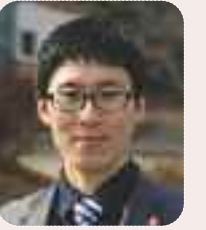
이정호(30, 기계공학) KOPEC의 신행엔진입니다. 첫 출근의 설렘을 열정으로 바꿔 최고의 엔지니어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민규(30, 전자공학) 선배들은 이제 편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KOPEC 향후 3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장규성(28, 전자공학) 장차 플랜트 전기계측 분야에서 규어움 받는 신입 인턴사원이 되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장용석(28, 토목공학) KOPEC인으로서의 마음을 배우고 KOPEC인이라는 자부심을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훌륭한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항상 인정받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호(30, 컴퓨터공학) 조용하지만 강한 열정을 소유한 신입 인턴사원 정호 인사드립니다. KOPEC의 신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지한(27, 토목공학) 전 세계 Best Power EPC 기업의 주인공, 지속가능한 역량을 지닌 한국전력기술인이 되겠습니다.



조경민(25, 행정학/경제학) "사회가 필요로 하는 Career Woman이 되자!" 부족함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오늘도 웃는 노력쟁이입니다. 행복한 기운이 맴도는 구매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진한(30, 기계항공학) Advanced! 제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원호(31, 기계공학)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학생 신분으로만 있어와서 여러가지로 부족하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경(30, 전자정보공학) 빛의 속도로 일을 배워서 KOPEC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조진호(28, 토목공학) 베이스는 밴드에서 리듬과 멜로디를 이어 음악을 조화롭게 합니다. KOPEC의 베이시스트가 되겠습니다.



정재현(28, 기계공학) 하루하루 꾸준하고 차분하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행복한 신입 인턴사원입니다.



진창용(30, 원자핵공학)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입 인턴사원이 되겠습니다.

패기와 포부

노지현 / 기계배관기술처 사원

리더십 교육때 썼던 저의 사명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꾸밈없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넷째 엔지니어로서 겸손할지언정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고 Specialist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일곱째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덟째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연수원을 다녀온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연수

기간동안 듀폰의 김동수 연사를 비롯하여 많은 연사들이 다양한 강연을 맡아 훌륭한 강연을 하여 주었고, 작품제작 엑스포, 커뮤니케이션게임 시간에는 조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의사 결정을 하였고, 때로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배우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내가 속해있는 부서와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교육에 힘들고 때론 지치기도 했지만, 재밌는 마술쇼와 밸리댄스 시간 같은 즐거운 강의도 있었기에 저희들에게 다시금 활력소를 불어넣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기간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이 터져라 소리도 지르고, 두려움을 안고 레펠을 하며, 얼음물에도 몸을 던졌던 챌린지 어드벤처와 해병대 캠프에서의 기억인데요. 아마 혼자 시도했더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나 동기들이 함께 하였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많은 고난과 시련이 함께 할지도 모르나, 정확한 목표와 의지할 수 있는 동기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받쳐주는 선배들과 함께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기술은 Global Power EPC 기업으로서의 전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전력기술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영원한 KOPEC인으로 남겠습니다. 이제 사회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저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바라면서 저희들 앞에 펼쳐진 무한한 기회를 안고 신입의 패기와 포부를 발휘하여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리훈(27, 정보및컴퓨터공학) 정보 전산실 막동이입니다. 얼른 배우고 커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최선욱(28, 전자전기컴퓨터학)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선배들의 노하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질책보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은규(29, 화학공학) 스타와 만화 원피스를 좋아합니다. 선배들과 하나의 같은 목표를 향해 뛰는 멋진 KOPEC인이 되겠습니다.



최은봉(30, 전기제어시스템공학) 선배들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원(32, 건축공학) KOPEC의 듀오 매니저! 2010년 3월 20일 첫 커플 결혼성사! 상급선배들 연락주세요!

진실된 열정과 소통

조경민 / 외주구매실 사원

“부족함은 나를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다. 모든 것에는 최선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위 두 가지를 항상 유념하며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미소를 안겨주는 언행습관과 음양을 함께 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핵심인재로 가정에서는 소통의 구심점으로 나아가 사회에서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커리어우먼으로서 임할 것입니다. 진지함과 유쾌함을 겸비한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는 마음에 힘을 빼는 여유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만심이 아닌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임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나는 오늘도 웃는다).

1월 4일 입사식 날, 33기 동기들의 눈빛과 처음 마주했을 때 진정

한 열정을 쏟을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앞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인연이라는 것에 가슴 설렐었습니다.

안성 삼보교육원에서 첫 인사를 나누고 쑥스러움에 겨워 있기도 잠시 마음속 KOPEEC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공유하면서 이제 함께 나아가는 협력자이자 조력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주의 합숙교육동안 다양한 팀 프로젝트와 유답 과정을 통해 개개인 역량의 합이 전체의 합보다 클 수 있도록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식기 오와 열’, ‘해병대 묵사발가’로 59명이 하나의 따뜻한 악으로 뭉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강사가 말하길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원동력은, 보이지 않지만 상통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KOPEEC과의 인연의 소중함과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계를 쳐다 볼 때면 하루를 그릴 줄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면 일주일을 떠올리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회사의 비전을 실천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직장 동료들 대할 때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33기 동기들과 진실된 열정과 소통으로 “KOPEEC 2020 New Vision”의 운곽을 선명하게 그려나가는 당당한 KOPEEC인이 되겠습니다.



동반자 KOPEEC인

최진원 / 원)토목건축기술처 사원

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시작된 제 생활신조는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간다”로 내포된 의미는 “미래의 불투명함을 현재 속에서 노력이란 양념을 통해 어떻게 요리하는가에 따라 미래인생의 맛을 다르게 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그 맛을 만들기 위해 우선 어떤 맛이 자신에게 가장 맛있는 것인지, 즉 가장 이상적이며 가슴 뛰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수 때 교육받은 비전과 일맥상통 합니다. 군 시절 아버지께 선물받은 책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를 통해 처음 접했던 비전은 연수과정 중 회사의 비전과 맞물려 다시 한번 가다듬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비전과 함께 한 결단이 행동과 전략을 만들며, 그 행동과 전략의 열매가 바로 개인의 인생과 기업의 활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비전에 다가가기 위한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취업이라는 꿈을 성취한 사람들이지만, 혹시 취업 이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꿈이 없거나 정지해 있다면 유목민들에게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시켰던 칭기스칸의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처럼 꿈꾸기를 멈추지 말고, 꿈에 투자하고 꿈을 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어렵고 두려운 외부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봐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련과 도전이 닥치는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머리 속에서 만들어 낸 창작품이며, 우리는 단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평균 2천 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걸음마 시절을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넘어져 걸음을 뛰어넘는 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Global Top Energy Plant Designer’ 라는 꿈을 위해

남들이 부러워했던 직장에서 내려와, 1년 7개월 간의 준비를 통해 큰 도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해병대 캠프에서 저는 하루동안 몸살이 찾아와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양 옆에서 부축하며 이끌어 주었던 동기들이 있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



과 동기애를 느끼면서 힘을 얻었고, 야간 고무보트 훈련 때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 동기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동기들이 따뜻하고 열린 가슴을 지닌 ‘동반자 KOPEEC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동반자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행동하고, 나를 내려놓고 비우며, 진정한 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 또한 동반자 KOPEEC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보전산실 전산지원팀

김혜린 / 정보전산실 사원



현대 사회에서 IT(정보기술)에 대한 업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은 IT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회사 또한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전산지원팀은 직원 여러분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IT인프라(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전산지원팀에서는 사내 모든 직원의 정보시스템(CPMIS, IPIMS, DL, EDB-NSSS 등) 활용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IT인프라 자원 운영, 네트워크 운영,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의 IT인프라 자원 확보 지원을 위하여 회사 전산업무환경에 적합한 기술규격 및 사양, 적정수량 선정, 업무 적용성 검토 등의 업무 수행과 본사, 별관,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단 및 각 현장사무소 사

용자 등 3000명 가량의 임직원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 다양한 IT 전산자원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방안 검토,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회사에는 100여대의 각종 업무용 서버, 스토리지, 고속프린터 등 공용설비와 개인용 전산장비 5,000여대가 있다.



전산지원팀에서는 최적의 IT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술규격 및 사양 등을 검토하여 직원 여러분이 사용용도 및 규모에 적합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장기 대여 노트북도 직원 여러분의 업무에 적합한 노트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및 가격 심사를 수행하여 도입 추진 중이다.

PC, 프린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회사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네트워크서비스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100여대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기획/구축/도입 검토 업무를 전산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화벽, IPS, VPN, WAF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TMS, ESM 등 보안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회사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관제시스템은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운영중이며, 42개 산하기관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해킹 등 보안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 및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10년 1월부터는 해외 등 외부에서 회사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SSL VP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용 전산프로그램의 검증, 등록 관리 업무와 우리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S/W 112종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설계업무에 사용하는 엔지니어링용 S/W의 기술검토, S/W의 인증 및 사용시험을 통해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설계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S/W를 검증 등록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 등록된 엔지니어링용 주요 소프트웨어의 요약정보를 주기적으로 정리해 책자로 발행하여 용역수주를 위한 사업개발 등 회사 홍보시 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전산지원팀은 앞으로 우리회사가 해외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Global Top 5 Power EPC Leader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전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제국 팀장

원전 정비보수관리 전산화 및 발전 설비 보수관리 전산화 용역 등 8년간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한 후, 1991년부터 회사 내부 전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보통신운영팀장, 전산기술팀장 및 전산기획팀장으로서 전산부서를 이끌었으며, 2007년 1월부터 전산지원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25년 이상을 IT분야에 종사하여 IT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론 제시 및 의사결정을 통하여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김제국 팀장

김진우 차장

경력사원으로 입사 후 한국전력의 전산화 용역인 송전 보수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 초 회사의 설계업무 전산화를 담당하면서, 당시 회사의 CAD용 전산정비인 VAX를 개인용 W/S 과 PC로 교체하여 Client/Server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도면 출력과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본관 및 별관간 전용회선 설치 등의 작업을 통해 현재의 설계업무 전산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전산 지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진우 차장

박원태 차장

대부분의 시간을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했고, 현재 우리회사 경영정보시스템의 역사적 증인이다. 경영정보시스템은 IT기술변화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의 시스템 재개발이 있었고, 한번은 개발실무자로 또 한번은 개발책임자로 역할을 다하여 지금의 경영정보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사업수행에서 필수적 도구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검증, 등록 및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박원태 차장

강명진 차장

회사 종합전산화 계획의 일환인 EDMS(전자결재시스템)와 KMS(지식관리시스템), POMS(사업성과물 관리시스템), ITPMS(기술개발과제 관리시스템) 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조직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사내 전산 자원의 필요성 검토 및 도입,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속한 사용자 지원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명진 차장

김혜린 사원

2004년에 정보통신 직군으로 입사하여 회사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팀 막내였는데, 6년 만에 최리훈 씨가 입사하여 막내에서 벗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 네트워크 장비가 Cisco사 제품이어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에 CCIE(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실기시험을 해외에서만 볼 수 있어 호주에서 시험을 봤다. 현재는 사이버 보안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대학원 취학 등 네트워크 보안 업무에 점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김혜린 사원

최리훈 사원

2010년 입사한, 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신입 인턴사원이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루 빨리 정보전산실의 중요한 인재가 되겠다며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열정으로 전산지원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최리훈 사원

CPMIS, IPIMS, DL, EDB-NSSS

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

미국 지구물리학회(AGU) Fall Meeting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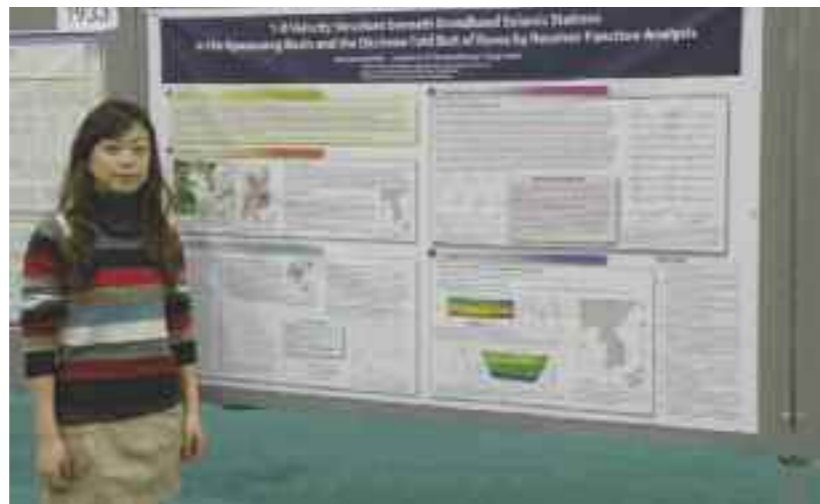
박선정 / 원)토목건축기술처 사원

미국 지구물리학회(AGU, American Geophysical Union)는 대기과학, 지질학, 지진학, 해양학, 행성학, 지구동역학, 화산학 등 지구과학 분야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룬다. 매년 1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크 컨벤션 센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해마다 약 수천 명 이상의 학술인이 참여하는 지구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2009년 AGU Fall Meeting에는 전 세계 16,000명 이상의 학술인 및 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참여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각 기관의 지질학 및 지진학 관련 학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지진학(Seismology) 분야는 크게 지진관측망 설치 및 운영,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수치 모델링을 통한 강진동 모사와 공학 설계의 적용, 지각구조 등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동안 진행되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발표가 있었다.

첫째 날은 지진관측망과 지진계 설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발표를 하는 포스터 세션에서 오전 시간을 보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관측망을 운영중인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한전전력연구원(KEPRI) 등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도 원전 부지에 대해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원전 부지 지진 기록 자료와 더불어 우리회사 자체 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부지 하부의 지진파 전달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 원전 부지의 지진안전성을 평가하고,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면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의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다.

둘째 날은 포스터 발표장과 구두 발표장 모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주요 주제였다. 캘리포니아 및 미서부 지역의 발전된 조기경보시스템과 일본 및 그 외의 전 세계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시스템 구축 현황과 비교할 수 있었다.



지진계 하부의 1차원 지진파 속도 구조에 관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셋째 날인 수요일은 나로서는 가장 흥미 있는 강진동 분야의 발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강진동이란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규모의 지진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강진동의 분석은 원전과 같은 주요 구조물의 내진 설계 및 구조물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분석 자료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큰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주로 강진동 모사(Simulation)를 통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신월성 1,2호기 지진안전성 평가 시, 부지 인근의 단층 영향 평가 시에 사용하였던 프로그램 FINSIM의 저자인 Atkinson 교수의 구두 발표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롭고 뜻 깊은 날이었다.

넷째 날은 나의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발표 주제는 한반도 중남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의 지진 기록을 이용하여 도출한 '지진계 하부의 1차원 지진파 속도 구조'이다. 포스터 발표를 하는 동안 US DOS의 기술진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에 매우 흥미로워 하며 포스터 사진을 찍어가고, 학회를 마친 후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발표를 하는 중간 중간 틈이 나면 주위의 포스터를 돌아보았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이탈리아 화산연구소(INGV, Istituto Nazionale di Geofisica e Vulcanologia)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연구 결과였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은 확률론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원전 부지에서 지진동의 연초과 발생 확률을 도출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모든 원전 부지에 대해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97년 연방법에 의해 의무화된 바 있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으나 대부분 방법론은 유사하다. 그 중 이탈리아 화산연구소는 프로그램 SASHA를 이용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그 프로그램을 요청해 습득할 수 있었다. 습득한 프로그램에 의한 국내 원전의 분석 결과와 현재 우리회사에서 보유한 프로그램에 의한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해양 지진학과 관련된 세션을 마지막으로 AGU Fall Meeting은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세계 3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1905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시의 90% 이상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린 적이 있다. 그 후 다시 재건을 시작하여 10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여느 대도시들이 그렇듯 샌프란시스코도 바둑판처럼 여러 구역으로 쪼개져 있는 곳이 많고, 도시 건물들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현대적이지도 않으며 백년을 살아오면서 조금씩 고쳐온 듯한 느낌을 준다. 다리나 크루저를 통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관광 명소인 피셔맨스윌프와 금문교 정도를 돌아보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도 꼭 해보아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해외 학술활동에 처음이자 혼자서 참가해 보는 터라 설레기도 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던 나에게 AGU Fall Meeting은, 지구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회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많은 발표들, 전 세계의 수많은 참여자들, 저널에서나 보아왔던 저명한 학자들을 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참여자들 앞에서 우리회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뜻 깊은 경험을 안겨주었다.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관광 명소인 피셔맨스윌프와 금문교 정도를 돌아보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스트레스 해소법



쇼핑 : 평소에 갖고 싶었으나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물건을 구입한다.
 운동 : 평소에 즐기던 운동을 통하여 땀을 흘려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므로 일석이조.
민충기 / 배관기술처 차장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뻘 후, 샤워를 해서 몸을 Refresh 시킨 다음, 영화 한 편을 보다 스르르 잠이 들면 머리까지 Refresh 된답니다.
권국희 / 원)전기계측기술처 사원

스트레스가 쌓이면 줄넘기를 하곤 합니다. 일단 몸에서 땀을 배출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도 배출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또한 운동의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로도 훌륭한 방법이지요.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하는 분은 생각보다 줄넘기가 힘든 운동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송명준 / 원)자료계통설계처 대리

예전에는 잠을 푹 자면 스트레스가 해소됐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보를 통해 좋은 방법을 배우고 싶네요.
이환호 / 배관기술처 사원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단연 영화감상이다. 물론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즐거움을 배가할 때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조용히 집안에서 22인치 Full HD 모니터를 이용해 영화 파일을 감상한다. 심심풀이 군것질거리는 기본이다. 과자류, 땅콩, 오징어, 음료수는 Self로 준비해 두고서 영화를 보는 동안 복잡한 머리속을 비울 수 있다. 물론 부풀어오르는 뱃살은 빼이폰 부산물이지만.
이영석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간단하다면 간단하다. 먼저 조용히 운동화끈을 묶고 MP3를 귀에 꽂는다.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배회하거나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린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문제 발단의 원인과 배경을 짚어보고 대응책이나 수습책을 생각한다.
김택모 / 원)자료계통설계처 차장

업무로 인한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무실 문을 나서 밖의 시원한 공기를 쐬며 5분 정도의 산책, 좀더 심한 스트레스는 미드(미국드라마)를 보며 풀린다. 재미는 직장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활력소라 생각합니다.
진현균 / 플)토목건축기술처 차장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 열광합니다. 일이 주면 유행이 바뀌고 새로운 노래, New face, 아이들은 이미 다 외우고 있네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김현남 / 플)전기계측기술처 차장

“퇴근 후 아이들을 보며 오늘도 무사함을 감사하기.” 난 스트레스를 의식적으로 오래 안 가지려 노력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퇴근 후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 오늘의 짜증스런 일들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럼 모든 것이 확 날아가는 느낌. 단순하지만 진짜 100% 효과 있다.
이지애 / 원)토목건축기술처 사원



배드민턴과 친해지면 셔틀콕의 신비함에 빠져듭니다. 콕이 날아올 때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모든 걱정은 사라져요.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고, 땀도 흘리고, 배도 들어가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이것이 바로 1석 5조가 아닐까요.
홍수철 / 배관기술처 차장

고개를 올려 목 뒤 접히는 부분에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집어 넣는다. 동시에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히면 목 디스크도 예방되고, 한결 머리가 가벼워진다.
백승익 / 품질안전환경처 차장

• 의견이 실린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창의력게임 주제로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홍보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었더라?

김충태 / 정보전산실장

사진 찍기가 취미라 출사를 나가면 촬영 사이사이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메모지에 촬영일자, 촬영지, 촬영시 특징 등을 메모한 후 집에 돌아와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을 정리했다. 사진이 많을 경우는 밤을 새우기도 했다.

급한 상황으로 메모를 못했거나 메모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었더라?” 하며 정리에 애를 먹기 일쑤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소니사에서 나온 GPS 데이터로거(GPS-CS3KA)를 구입한 이후로 촬영시마다 번거롭게 메모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더욱이 메모지 내용과 사진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사진을 분류하느라고 밤을 지새우는 일도 없어졌다.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GPS-CS3KA 슬롯에 끼어 넣으면 촬영지의 위치 정보(경도와 위도)가 자동으로 사진에 기록되어 위치별, 날짜별 사진 분류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 이동거리는 구글어스나 플리커를 통해 언제든지 인터넷 지도상에서 촬영 궤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촬영위치는 궤적위에 표시된 태그를 클릭함으로써 그 지점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원리는 간단하다. GPS는 다들 잘 아는 바와 같이 위성을 이용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PS는 맵피나 아이나비 같은 지도와 함께 사용하여 네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GPS중에는 주기적으로 (수초 간격으로) 경도와 위도 정보를 메모리에 기록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 장치를 GPS 데이터로거(Data

Logger)라고 한다. 기존의 GPS가 “현재” 나의 위치만을 알려주는 장치였다면, GPS 데이터로거는 “현재” 나의 위치는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위치 정보도 저장해 주는 기기라 볼 수 있다.



GPS-CS3KA가 바로 이런 GPS 데이터로거로 내장 메모리에 위치정보를 갖고 있어서 사진이 들어있는 메모리카드를 삽입하면 촬영시각과 데이터로거 시각을 매칭시켜 사진에 사진 촬영위치(경도와 위도 정보)를 기록한다.

이런 기술을 지오타깅(Geo Tagging)이라고 하는데 “지리적인 위치(Geo)에 태그(Tagging)를 다는 행위”라는 뜻으로 일명 “위치 꼬리표 붙이기”이다. 즉 사진에 지역 위치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오타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년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IT 분야의 전략적 핵심이슈로 뽑은 위치기반 기술분야에 선정되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사실 지오타깅은 디지털카메라 소유자라면 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배낭메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위치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수백, 수천장의 사진을 정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오타깅이 얼마나 편리한 기술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지오타깅 기술을 사진에 활용하려면 GPS 데이터로거와 프로그램 그리고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일반 디지털카메라는 GPS기능이 없으므로 GPS 데

이터로거를 구입해야 한다. GPS 데이터로거는 전원으로 AA크기의 알카라인이나 니켈 수소 충전지 한 개를 써서 약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국산 GPS 데이터로거는 7~8만원선이고 외산 GPS 데이터로거는 10만원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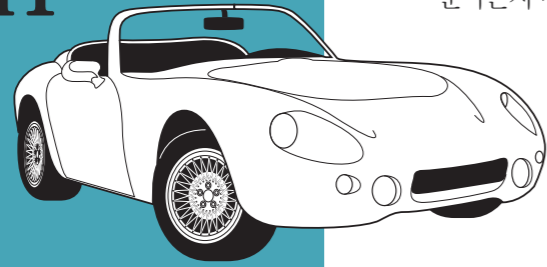
디지탈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EXIF(EXchangeable Image Format, 교환이미지파일형식) 규격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 속에는 GPS 위치정보와 함께 카메라 제조사, 제품명, 사진 찍은 날짜와 시간, 색공간, 초점 거리, ISO 감도, 조리개, 셔터 속도 등의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디지털카메라에 설정된 시간을 GPS 표준시간과 정확히 맞춰 놓으면, GPS 데이터로거 전용 소프트웨어나 공개 소프트웨어(로케이션 스탬퍼)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에 기록된 트랙 로그와 카메라로 찍은 사진 파일에 기록된 시간을 연동해 사진 파일에 해당 위치정보를 써넣는다.

로케이션 스탬퍼는 여러 종류가 나와 있으며 대부분 무료로 구할 수 있다.

며칠전 구입한 아이폰은 GPS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다. 혹시 하는 생각에 메뉴를 살펴보았다. Geo Tagging 활성화 기능이 보인다.

CarDiY



김민 / 원자로계통설계처 차장, CarDiY 총무

한다. 잠시 잠긴 생각 때문인지 뽕뽕대는 뒷차 소리로 가던 길을 재촉한다. 최근처럼 폭넓고 다양해진 사회는 어느 분야든지 매니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동차에 대한

매니아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을까?

2005년 12월 어느 날 나를 비롯한 몇몇 직원은 찬바람이 쩍쩍 불어대는 아침 나절부터 창고 건물이 들어선 주차장

으로 차량을 몰고 나타났다. 차량방음 작업 즉, 잡음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이 차량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을 조금이라도 막아 정숙한 차량을 만들어 보고자 모인 것이다. 작업도구를 쥐기도 그리고 도어패널을 분리해내기에 도너무나 얼얼한 날씨였지만 언 손을 호호 불며 모두들 즐겁게 작업을 이끌어 나갔다. 작업을 마친 차량들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재탄생하였고 이를 바라보는 차주들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하였다.

이 일이 있기 한달 전 접지(Earth)라는 생소한 용어를 차량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후한 차량은 전기적 누수(Leakage)에다 공급로가 노화되기 때문에 약해진 전기를 보강하기 위한 그야말로 극약처방의 방법이다. 엔진의 전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과 접지선을 직접 제작하여 연결하기까지 두 손은 오통 기름과 카본때로 시꺼멓게 범벅이 되고 말았다.

썩썩 불어대던 차가운 바람 때문인지 간밤에 도로는 더욱 쫄쫄 얼었다. 아니나 다를까 출근길 복마병 같은 화암사거리에서 차량 간의 충돌사고가 있었다. 검정색 로체가 주의를 소홀히 한 탓인지 앞선 소렌토를 뒤에서 받고 말았다. 사고를 낸 로체는 언뜻 보기에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새 차인데 그래서 그런지 차주가 더욱 낙담한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승용차는 탈 것이라기보다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남성들의 호기를 자극하며 구매를 충동하는 상징물이 되어가는 듯하다. 다양해진 차종과 디자인은 늘상 있는 출근길이나 어느 여행길을 무료하지 않게

차량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CarDiY 자동차 동호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 동호회의 성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하는 동호회이다.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중의 자동차 수리공임이 비싸기 때문이다. 주변 업체들의 견제로 관계가 소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이다.

어찌됐든 업체들은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리도 까다롭게 해야 하는 만큼 품질도 향상되었다. 어느 춘계 단합행사에 엔진세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분해된 엔진을 손수 운반해 와서 설명하고 이어 뒤풀이까지 함께 해준 고마운 업체대표가 기억에 남는다.

창설 원년인 2006년, 그간 차량의 에어컨냄새로 고민하던 직원들이 에바크리너 작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CarDiY는 서서히 직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회원과 운영진 모두가 아마추어 정신으로 봉사하고 희생해준 결과 덕분에 2007년 말에는 창설 2년 만에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호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CarDiY는 종교성을 갖지 않지만 운영진 모임은 늘 기도로 시작한다. 이는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이다. 창설 후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적잖은 기쁨과 보람이 있었지만 원년의 마스크트로서 봉사해준 신입여직원이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룬 것은 특별한 기쁨이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직원들의 차량도 많이 바뀌었고 특히 2009년은 노후차량에 대한 여러 지원으로 새로운 차량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차량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노후 차는 CarDiY의 존재감을 더욱 높이는 것이기에 노후된 차량을 돌보는 일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차량을 잘 관리하여 훗날 올드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다면 멋진 일이 아닐까?

2010년을 맞이하며 CarDiY는 회원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해 본다. 자동차의 이로움과 편리함을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능력 안에서 이해하고 협력하며 가장 아름다운 동호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KOPEC CarDiY이기를 희망한다.



언제나 함께 해주는 가족

원자력전기계측기술처 양천우 팀장 가족



벌써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매서운 바람은 물러나고 훈풍이 코끝을 간지를 모양입니다. 한때 초등학교 입학생이었던 저도 이젠 초등학교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성실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전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쟁이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힘 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바람을 쐬기도 해요.

끝없이 파란 하늘을 보며 바람을 쐬면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이 뽕 뿜려 버리고 굉장히 상쾌해지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은 어느새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콕 박혀서 힘들어도 제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건 하늘을 보며 바람을 쐬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빠죠. 우리 아빠는 선수들의 코치 같아요. 선수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도 저에게 따끔한 충고와 칭찬으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끔씩 그런 아빠가 무섭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다 저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전 언제나 함께 해주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요. 아빤 등산을 좋아하는데, 거의 매주마다 등산을 가는 아빠를 보면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비나 눈이 왔을 때도 갔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엔 산 정상에서 느끼는 그 뿌듯함과 상쾌함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산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산을 좋아해요. 산에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나 울창한 숲,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 전경을 보면 뿌듯함과 함께 상쾌함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아빠랑 광고산에 갔다 오곤 합니다. 또 아빤 술을 좋아하는데, 이따금씩 엄마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 서운해요. 맛도 없고 몸에도 좋지 않은 술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스마일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일.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엄마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며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언제나 엄마 자신이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엄마는 우리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착한 오빠가 있어요. 마르고 뽀얀 피부를 가진 오빠의 몸매가 부러운데, 아빠 엄마는 건강에도 안 좋고 옷 맞추기 힘들다



며 편식하지 말라 귀가 따갑게 주문합니다. 나에게 장난을 쳐서 싸울 때도 있지만, 가끔씩 모르는 수학 문제나 궁금한 걸 풀이도 해주고 해결도 해줘서 언제나 고마워하고 있어요. 가끔씩 웃긴 행동을 해서 저를 웃게 만들기도 하죠. 매일 장난만 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은 따뜻한 면을 보여주는 오빠가 좋아요. 요즘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 거울을 자주 본답니다.

전 언제나 함께 해주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아빠, 매일매일 웃으며 다독여주는 엄마, 그리고 가끔씩 따뜻하게 웃어주는 오빠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양수현 / 양천우 차장 자녀

*우리가족 만세'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층 차수벽공사 및 압력식 네일링 공법에 의한 사면보강 홍지기술산업

최근 신고리원자력 1,2호기 및 신월성원자력 1,2호기에서 차수벽공사 및 본부지 사면보강공사를 시공한 토목 전문업체를 방문하였다. 1992년 토목지질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설립한 홍지기술산업은 창사이래 오직 기술력만으로 고성장을 거듭해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내 기초공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같은 전문업체는 기술력만이 경쟁력이라는 신념아래 국제특허 4개, 국내특허 23개, 실용신안 3개, 통상실시권 2개 등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학중 홍지기술산업 회장은 우리회사와의 업무협조로 항상 협력하여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전임직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

을 파괴하는 개발이 아니라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빌린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돌려주자고 하였다. 신고리원자력 1,2호기 및 신월성원자력 1,2호기에서는 Sheet Pile(EMSP, 특허)을 전석층을 관통하여 암반까지 시공함으로써 바닷물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여 원활한 후

속 공정을 이루도록 기여하였고, 본부지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압력식소일네일링(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효과를 실현하였다.

기초공사분야에서는 전석 및 자갈층 천공시 Ez-Mud를 분사하여 Casing사용을 최소화하며 공벽을 형성시키는 공법을 개발하여 국내 대부분의 발전소 및 변전소 등에 적용하여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EMP공법의 개발로 부산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이 회사장을 발전소 부지로 활용하는데 깊은 기초의 시공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호안사석이나 전석층과 같이 시공이 매우 어려운 지층에서도 기초말뚝이나 Sheet Pile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반개량 및 차수분야에서는 무기질계 영구 그라우팅(SPG) 공법을 개발하여 규산소다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용탈현상이 없는 반영구적인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지하철 및 발전소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강보강재를 이용한 RECO 보강토옹벽공법(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공법 대비 탁월한 경제성과 시공성으로 다년간의 시공실적을 쌓아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 강화토 엔지니어링과 기술제휴(TUSS공법, 항구그라우팅공법)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동화력, 부산복합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발전소와 청평수력발전 및 고리원자력, 영

광원자력, 울진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대부분의 발전소 기초공사와 변전소 및 송전선로 기초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 기초 토질분야의



전반적인 조사용역과 사면안정성 해석, 지반강화 및 기초 설계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설계와 시공을 겸비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토목전문업체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사업부서를 신설하여 지하수, 토양복원 및 하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친환경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면밀한 현장조사 및 최적의 정화계획을 제안하고 시공함으로써 회사의 기본이념 실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성학중 회장은 “국내 발전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에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바타’가 몰고온 3D 열풍



이진호 / 전자신문 기자
jhlee@etnews.co.kr

제임스 카메론의 역작 ‘아바타’가 전세계에 3D 쓰나미를 몰고 왔다. 극장이란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산업계, 여가활동 전 분야로 3D 열풍이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풀 HD급 3D 시험방송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3D 시대에 돌입할 예정이다. 3D는 인간의 보는 재미를 극대화한다. 좀 더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기술 발전을 추동하고, 그 기술로 인해 지금 눈앞에는 3D의 신천지가 열린다.

신년 개막과 함께 벽두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0’은 ‘3D 잔치’라고 이름 붙여도 될 정도로 현존하는 3D 기술과 제품이 총출동했다. 삼성전자·LG전자·소니·파나소닉·샤프 등 글로벌 기업은 3D 제품을 전시장 전면에 내세우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한 참관자는 “전시장을 방문한 수많은 방문객을 아바타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으로 나눌 정도로 3D가 최대 관심사였다”며 “별 다른 테마가 없던 전자업계에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아바타가 뇌관 역할

영화 ‘아바타’가 3D 대유행의 뇌관 역할을 했지만, 기본 개념과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이미 1950년대에 3D 영화가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상용화 시도가 있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디스플레이의 한계, 눈의 피로, 안경을 써야 하는 불편함, 비싼 가격 등 여러 요소가 장애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콘텐츠 부족이었다. 최근 3D가 떠오른 것도 영화 아바타와 같은 화려한 영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진 3D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아바타였던 셈이다. 영화를 보면서 일반인도 “3D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구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

고 산업계는 자연스럽게 “돈이 되겠다”고 판단하면서 ‘3D 열풍’을 만들어냈다.

시장은 이미 빠르게 3D로 진화 중이다. 물꼬를 튼 건 영화계다. 할리우드는 3D에 ‘올인’했다. 월트디즈니는 2011년까지 22편의 3D 영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앞으로 모든 작품은 3D로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할리우드 4개 메이저 배급사인 디즈니·20세기폭스·패러마운트·유니버설은 7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서만 1만개 3D 전용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 업체 스크린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3D 스크린은 지난해 5000개 수준에서 2013년 1만5000개로 세 배 이상 쾡쾡 될 것으로 낙관했다.

3D 방송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스포츠 채널 ESPN은 오는 6월 시작하는 남아공월드컵을 3D 방송으로 중계한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는 소니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3D TV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3D 방송을 내보냈고 오는 10월 KBS와 같은 지상파에서 세계 처음으로 3D 시험방송이 이뤄진다.

디스플레이·단말기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TV·모니터·휴대폰·스캐너·카메라·노트북까지 모든 하드웨어

가 점차 3D로 바뀔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미디어는 3D TV 시장이 올해 680만대에서 내년 1750만대, 2012년 312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 모바일디스플레이는 어지럼증을 없앤 AMOLED 3D TV를, LG디스플레이는 2D·3D 전환이 가능한 대화면 패널을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안방 3D 시대 성큼

3D TV가 2010년 TV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흑백TV에서 컬러TV로,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 HDTV로의 전환을 잇는 제3의 TV혁명으로까지 불린다. 이 평가가 적중한다면 3D는 분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게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2010년이 3D TV의 원년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영화제작사·배급사와 TV 업체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업체 쪽에서는 불법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3D 영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제조사는 평균판매가격(ASP)을 유지하기 위해 프리미엄급 제품 라인업 확대가 불가피하다. 올해에는 LCD·LED TV의 가격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D TV가 수익성을 받쳐 줄 효자상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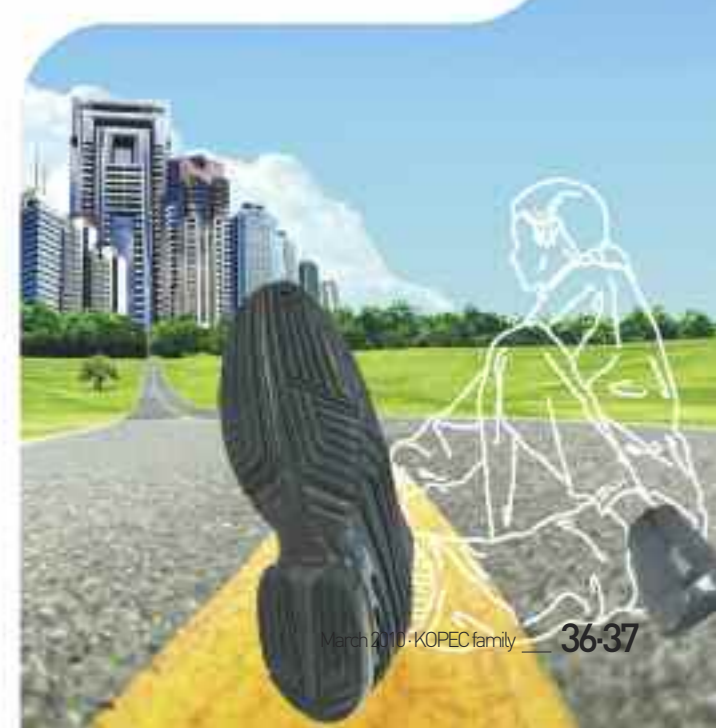
특히 올해 3D TV 수요는 오는 6월 월드컵 이후 다양한 3D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일반 TV에 비해 200만원가량 비쌌던 가격 역시 올해 최대 40% 정도 떨어지면서 소비자의 실감영상 시청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3D 영화 보급은 3D TV는 물론이고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AV 및 휴대형 단말기 보급 확대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D TV뿐만 아니라 3D 타이틀, 3D 플레이어, 3D TV 안경을 포함한 3D 종합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3D용 노트북, 모니터가 나와 있다”며 “앞으로 게임기, 디지털액자,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3D 시장 규모 2015년 1500억달러

지난해 전 세계 3D 장비·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44억 달러로 볼륨 확대를 위한 초기 단계로 진입했다. 2015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150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초기 3D 시장은 3D TV가 주도하는 가운데 모니터와 휴대폰 순으로 커진다. 인사이트미디어는 3D TV의 경우 3D 시험방송 실시와 함께 3D 콘텐츠를 저장·재생하는 블루레이가 보급되면서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낙관했다. 3D 휴대폰은 안경이 없는 방식으로 크기가 작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부터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3D 제품 규모는 3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2.1% 수준.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3D TV는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중심으로 고해상도 제품이 나온다. 3D 모니터는 레드로버 등 중소기업 주도로 특수용 3D 모니터 시장을 시작으로 의료·항공·건축·토목 등으로 확대된다. 3D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직 미국·프랑스 제품에 의존하지만 주요 국내 기업이 3D 프레젠테이션 도구 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 점차 시장이 외산에서 토종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01 모양성으로도 불리는 고창읍성(사적45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조선시대 읍성이다 02 신재효 고택 안에 마련된 판소리 배우는 모습 03 명창들의 연보와 유품들이 전시된 판소리 박물관

유명한 풍류 속에 선운사 동백은 피고지고, 근창

글, 사진 · 남정우 / 사진작가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특히 서해안자락에 자주 폭설이 내렸고 산간의 수은주는 영하 이십 도를 오르내렸다. 겨울이 매서울수록 봄이 더 그리운 법이다. 한줄 훈풍이 그립고 따사로운 별이 그립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그리운 것이 꽃 소식이다. 봄의 초입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은 동백, 매화, 산수유다. 힘겨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들은 피어오르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인 것은 동백이다. 3월 중순, 목을 푹푹 떨어뜨린 채 널브러져있는 동백 숲에 들면 아름답기보단 처연하다는 생각이 더 짙다. 서정

주의 시 '선운사 동구'로 인해 동백 숲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선운사와 고창 땅으로 떠나본다.

선운산 자락의 소담한 절집, 선운사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서해어귀 죽도포에 돌배가 떴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배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자꾸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소문을 들은 김단선사가 바다로 가니 비로소 배가 해안으로 다가왔다. 배 안에는 불상과 나한과 옥돌부처와 금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그 품에서 편

지가 한 장 나왔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이 배는 인도에서 왔으며 절을 지어 배 안의 부처를 모시면 길이 중생을 제도, 이익케 하리라.' 김단선사는 연못을 메워 절을 세웠고 신라 진흥왕은 재물과 장정 100명을 보내 공사를 돕고 경비를 보냈다. 약 천오백년 전에 창건된 선운사의 창건설화다.

징하게 내린 겨울의 흔적이 아직 녹지 않았다. 산사로 향하는 도솔천 주변으로는 아직 눈이 쌓여있었다. 하늘을 가릴 듯 짙은 편백나무 숲, 그 한편에 부도밭이 있다. 선운사 부도밭에는 추사 김정희와 백파선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두 사람은 당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인이었으며 최대의 라이벌이었다. 백파선사가 입적하자 추사는 손수 글을 쓰고 비문에 새기니 바로 백파율사비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략) 가난하기는 송곳 꽃을 자리도 없었으나
기상은 수미산을 덮을 만하도다
아버이 섬기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였으니
그 기풍은 정말로 진실하도다
속세의 이름은 궁선이나 그 나머지야 말해 무엇하리요'
- 완당학사 김정희가 찬하고 또 쓰다 -

선운사 경내로 드는 천왕문을 지나면 길이가 아홉 칸이나 되는 만세루가 나타난다. 맞배지붕의 소탈한 강당건물인데 이 만세루 마루에 앉아 산사의 봄을 즐겨봄직하다. 그러나 3월 선운사 여정의 핵심은 역시 동백꽃과 마주하는 일이다. 대웅보전 뒤편으로 군락을 이룬 3천여 그루의 동백 숲이 자리하고 있다. 온통 붉은 그 숲 옆에 서면 보는 사람의 마음 켜에도 푹푹 동백물이 들듯하다. 선운사 동백 숲은 천연기념물 184호로 지정되어 있다.



04



05

비기를 간직했던 동불암 마애불과 도솔암, 낙조대
선운사를 나와 우측길을 따라 오르면 도솔암과 낙조대로 향하게 된다. 도솔암은 선운사의 부속암자로 선운산의 깊은 자락에 자리하여 내원궁으로도 불린다. 도솔암 나한전 왼편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는 우직해보이는 인상의 동불암 마애불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초기에 조성된 높이가 17m나 되는 거대한 마애불이다. 이 마애불에는 예로부터 요상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온다. 마애불의 배꼽에 신기한 비결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한다는 내용이다. 또 비결과 함께 벼락살도 들어있어 거기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벼락 맞아 죽는다는 것이다.

1820년 부임한 전라감사 이서구는 이 마애불의 배꼽에서 서기가 뻗치는 것을 보고 마애불의 복장감실 뚜껑을 열어 본다. 그곳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서구가 열어본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순간 마른하늘에 벼락이 쳤고 놀란 감사는 얼른 뚜껑을 닫아버린다. 그 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2년 8월 어느 날, 이 고장 출신인 손화중의 집에서 모의가 열린다. 동불암 마애불의 비결을 열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두들 벼락살을 걱정했는데 그때 한 도인이 말하길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봤을 때 이미 벼락이 쳤으므로 벼락살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동학도들은 결국 동불암 마애불의 비결을 훔쳐간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로 당시 수백 명의 동학도들이 무장현감으로 잡혀와 취조를 당했지만 비결의 행방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선운산은 해발높이가 355m로 그리 높지 않다. 도솔암까지는 쉬엄쉬엄 오르더라도 30분가량, 낙조대까지 올라본다면 편도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조선의 읍성, 고창읍성
고창읍에는 모양성으로도 불리는 고창읍성이 있다. 둘레가 1680m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석성이다. 호남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예로부터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읍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처음 읍성이 만들어진 것은 단종 원년인

04 갑리 고인돌 군 입구에 마련된 고인돌 박물관의 전시물 05 선운사 부도밭과 백파울사비

1453년으로 영광의 법성진성, 정읍의 입암산성과 함께 왜구로부터 호남 땅을 지키기 위한 주요 보호막이었다. 고창읍성은 읍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 개의 성문에는 별도의 읍성을 만들었고 성주위에 해자를 파서 요새화 시켰다.

고창읍성에는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음력 9월 9일에 열리는 모양성제의 성밧기 풍습이다. 원래는 저승문이 열리는 윤사월의 초엿새와 스무엿새에 치러졌다고 하는데,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는 속설이 전해져 온다. 성을 축조할 때 여자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지금도 성을 다 밝은 후에는 머리에 이고 있던 돌을 성 입구에 쌓아두는 풍습이 있다.

고창읍성은 사적 1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읍성 입구에는 판소리를 중흥시킨 동리 신재효의 고택과 판소리 박물관이 있다. 신재효는 1850년에 이 집을 지어놓고 명창들을 불러모아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여섯마당의 가사를 정리하고 이론을 세운 사람이다. 고택 옆의 판소리 박물관에는 명창들의 연보와 계보, 음반과 생필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규모에 비해 내용이 알차고 볼거리가 많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

고창은 강화도와 더불어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고



고창의 먹거리
고창을 대표하는 음식이 두 개 있다. 풍천장어와 복분자 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풍천은 지명이 아니다. 風川, 즉 '바람이 많이 부는 천'으로 선운사 인근의 인천강을 말한다. 그래서 인지 선운사 초입에 이름난 장어집들이 많다. 일인분에 18,000원 정도 한다.



06

06 선운사 동백꽃은 3월 초순 즈음에 피어 중순경 만개를 이룬다

인돌 밀집지역이다. 상갑리, 매산리 일대의 야산과 길 주변으로 2.5km 가량의 거리에 모두 500여개의 고인돌이 모여 있다.

이처럼 많은 고인돌이 밀집된 것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미 이곳에 대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상갑리 고인돌군은 예전에는 솔밭 숲 속에 산재해 있어서 일일이 찾기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깔끔하게 정비되었다. 주변에 고인돌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도보로만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이 남방식 고인돌인 상갑리 고인돌에 비해 도산리에는 잘생긴 북방식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민가의 장독대 뒤에 우람한 모습으로 서있는데, 우리나라 고인돌 중 가장 남쪽에 자리한 북방식 고인돌로 알려져 있다.

고창 가는 길

대중교통 /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하루 16회 고창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전주, 광주, 정읍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으며, 고창에서 선운사까지는 40분 간격으로 군내버스가 운행된다.

자기운전 / 서해안고속도로-선운산 나들목-고창 경부고속도로-천안, 논산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정읍 나들목-22번국도-고창

“장보고, 아리랑, 백두, 온누리의 공통점은? 1번 한국말이다, 2번 장군과 관련 있다, 3번 땅이름이다, 4번 공통점이 없다. 정답은 1번과 3번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지난 9월 정식 국제지명으로 채택된 한글로 된 땅이름이다. 그러면 이런 이름이 붙여진 곳은 어디일까. 놀랍게도 바다 속, 그것도 태평양 한가운데다.”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열린 제22회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회의에서 태평양 해역 북마리아나 제도와 마셜 군도 사이에 위치한 해산 4곳의 이름을 장보고 해산과 아리랑, 백두, 온누리 평정해산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직접 신청해 우리말 이름을 붙인 공해상 해저지명이 정식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아닌 태평양에 한글이름을 붙인 사연은 무엇일까.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 태평양처럼 먼 바다에서 항해할 때는 해와 달에 의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바다의 지도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1903년 모나코의 알베르트 왕자 1세가 대양수심도(GEBCO)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양의 해저 지형에 이름이 붙기 시작했고, 2009년 1월까지 전 세계 바다에 3467개의 공식 해저지명이 생겼다.

보통 12해리 영해 내에는 각자 그 나라의 고유 지명이 있다. 하지만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상에는 조사한 기구나 나라가 지명을 제정해 국제수로기구(IHO) 산하기구인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여기서 채택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해도에 기록된다.

물론 해저지명과 영유권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하지만 어떤 이름을 갖느냐는 영토 문제에 정서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2006년 울릉분지를 쓰시마분지로 명명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해저지명의 영향력을 기늠히 볼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해양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해를 탐사하고 해양지명을 붙이고 있다.

해저지형은 육상지형에 비해 부분적인 기복이 적고 경사는 완만하다. 깊이에 따라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해구와 해연으로 나뉜다. 대륙붕은 수심 35~240m의 범위로 전 세계 대륙붕의 평균수심은 128m다. 바다 쪽에서 기울기가 급변하는 부분은 대륙붕과 대륙사면의 경계다. 대륙사면은 비교적 급한 기울기를 가지는 해저지형으로 평균 수심 3660m에 달한다.

심해저는 평원과 구릉으로 구성되는데, 심해저 평원은 넓은 범위로 퍼져 퇴적된 것이고 심해저구릉은 작고 낮은 언덕형 지형이다.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의 좁고 긴 지역이고, 이 중 특히 깊은 곳을 해연이라 한다.

이번에 한글 지명을 붙이게 된 해산은 바다 속에 원뿔 모양으로 솟은 높이 1000m 이상의 봉우리다. 평정해산은 해산의 봉우리가 파도에 깎여 평평해진 해산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태평양 심해저 광물을 개발하는 지역에서 수심 5000m의 해저 바닥으로부터 솟아올라 수심 3000~4200m인 지형이 발견된 것이다.

태평양 공해상의 해산과 평정해산은 2001년과 2002년 심해저 광물 탐사 중 발견했다. 수심 5000m의 깊은 바다에는 망간단괴 등의 광물자원이 매립돼 있는데 이는 망간이나 구리, 니켈 등의 금속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 등 바다의 광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1만km, 괌에서 동쪽으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태평양 공해

상에서 해양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1983년부터 하와이대의 연구선을 빌려 시작한 탐사는 1992년 종합해양조사선 온누리호의 건조로 더욱 진전됐고, 마침내 1994년 세계에서 7번째로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태평양 공해상 클라이언-클리프톤 해역에 15만km² 광구를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해양연구원이 탐사한 자료를 모아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발견된 해산과 평정해산의 자료를 국제기구에 등재심의 요청한 결과 4개의 지형에 한글지명을 붙이게 됐다.

해저지명은 해양과학이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명칭이다. 사람을 이름으로 쉽게 기억하듯 해저지명도 이름을 통해 해저의 입체적 영상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식 해저지명을 등록하면 우리 영토라는 느낌이 강해져 영토 확보와도 관계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을 생각할 때 이번 태평양 한글지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나라의 해양탐사 능력은 짧은 역사에 비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고, 장비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만큼 꾸준한 탐사를 통해 한글지명의 해저지형이 늘어나길 꿈꿔본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의미 없는 땅일지 모르나 한글이름이 붙은 그곳은 다르다. 우리에게 꽃이 될 수 있는 해저지형을 발굴해 한글이름을 붙이자. 그 꽃같은 이름하나라도 온누리에 한국을 알리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 KISTA의 과학향기



임영태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영토정보실장 서기관



물이 아닌 기호음료

이승남 /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

목이 마를 때 자주 물이 아니라 차나 음료를 마실 경우가 있다. 또는 차나 음료를 마셨으니까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다고 여기고 물을 덜 마시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음료들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 물과 기호음료를 착각해서는 체내의 수분균형을 건강히 유지하기 어렵다.

물의 적, 기호음료

차나 커피, 음료수가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기호식품 속에는 카페인을 비롯한 탈수물질이 들어 있다. 그래서 몸에 흡수되자마자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려는 성질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호음료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내의 수분까지도 함께 배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음료를 마신 후 소변의 양을 측정해 보면 마신 음료수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배설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사실 몸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기능성 음료는 대부분 다이어트나 S라인 만들기를 위한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뇨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이 체내 건조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물을 따로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좋다. 담배 역시 호흡기 점막의 수분을 건조시킨다.

노폐물을 배출해 아토피에 좋다는 루이보스 티, 항암효과가 있다는 주아르 티 등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효과가 녹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도 이롭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단, 이런 차 역시 카페인이 녹차보다 훨씬 많이 들었으므로 물을 6-7잔 정도 따로 더 마셔야 한다.

에스프레소와 같은 진한 커피를 즐기는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옆에 물 한잔을 따로 두고 함께 마신다. 에스프레소 잔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마신 음료의 두 배의 물을 마시는 셈이다. 기호음료를 마시더라도 이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 물보다 더 좋을까?

이온음료가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온음료가 흡수가 빠른 것은 땀으로 빠져나간 필수 미네랄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축구선수처럼 장시간 운동장을 뛰거나 등산 또는 마라톤 등으로 1시간 이상 격렬하게 운동한 경우에는 땀과 함께 많은 양의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럴 때는 음료를 통해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장염에 걸려 설사를 심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의 입덧에 이온음료를 추천하기도 한다. 입덧으로 인해 음식을 잘 못 먹는 임신부 역시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온음료를 통해 미네랄을 보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의 활동으로나 웬만한 운동으로는 미네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는다.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다면 음료의 흡수력은 보통 물과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평소 이온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몸에 쌓여 몸이 붓는 등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땀을 아주 심하게 흘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운동 중이나 후보다는 운동을 하기 20분쯤 전에 물을 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 전 마시는 물은 노폐물과 함께 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한편 운동후 주스나 과일카테일 같은 고농도 음료를 마시는 것은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해 갈증 해소에 바람직하지 않다. 탄산 음료도 몸 안에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과음후 탈수가 혈전과 심장마비의 원인

모든 술에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는 탈수물질이 들어 있다. 특히 독한 각테일류는 마신 술의 양보다 최고 10배까지 체액을 방출한다.

술을 뜨겁게 마실 경우 몸은 더 건조해진다. 이처럼 마신 것보다 소변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따로 마셔야 한다.

가끔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나 뇌경색을 일으키는 환자를 볼 수 있다. 내막을 알고 보면 심중팔구는 전날 과음을 한 전력이다.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혈액 속의 수분이 부족해 적혈구를 뭉치게 만드는 혈전을 일으키기 쉬워진 탓이다. 따라서 술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별도로 마셔야만 몸의 건조를 막을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한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
 Andy Warhol, the Greatest

2009. 12. 12 ~ 2010. 4. 4 서울시립미술관

문의 02-120 · 홈페이지 www.warhol.co.kr
 관람료 일반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산화페인팅 Oxidation Painting
 1978년 / 캔버스에 아크릴과 소변 / 35.6 x 25.4 cm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달러 사인 Dollar Sign
 1981년 / 캔버스에 아크릴과 실크스크린 / 228.6 x 177.8 cm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전기 의자 Electric Chair
 1971년 / 종이에 실크스크린 / 90.2 x 121.9 cm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팝 아트 운동의 선구자로서 매년 피카소와 함께 옥션 거래 총액 1~2위를 랭크하고 있는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국내 최대 규모 회고전이 4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최근 경매가 9억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마릴린 먼로, 비틀즈, 리즈 테일러, 마오 등의 인물화에 캠벨 수프, 꽃, 그리고 전시에서는 좀처럼 소개되지 않았던 추상 이미지인 그림자 시리즈, 캐머플라주 패턴 시리즈를 포함한 그의 주요작품

총 102 작품(203 Piece)에 사진, 기록물 등 283여점인 총 385 작품(486 Piece)이 선보인다. '앤디 워홀,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다'에서는 그의 대표작품들을 전시하며, 스타가 되기를 열망했던 앤디 워홀의 역설적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나의 자화상, 영원한 아름다움과 일시적 아름다움', 초기 드로잉 작품을 볼 수 있는 '성공한 디자이너에서 팝아트의 제왕으로'를 비롯하여 '타임 캡슐, 워홀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 '슈퍼스타 아이콘, 나는 헐리우드를 사랑한다', '워홀의친구들, 팝아트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한다' 등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마오 Mao
 1973년 / 캔버스에 아크릴과 실크스크린 / 61 x 50.8 x 2.5 cm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마릴린 Marilyn
 1967년 / 종이에 실크스크린 / 91.4 x 91.4 cm
 CMG Worldwide©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마이클 잭슨 Michael Jackson
 1984년 / 캔버스에 아크릴과 실크스크린 / 76.2 x 66 cm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려면

두인선 / 광동한방병원 로하티센터 원장

만물이 생동하는 봄, 마음은 벌써 따스한 햇살아래 봄꽃 속을 노니는데 몸은 짜뿌둥하고 피곤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은 쏟아지고 입맛도 없는데다가 황사로 인해 목은 칼칼하고 콧물은 흘러내리고……. 봄을 맞아 식욕저하, 춘곤증, 기력상실 등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외에도 최근에는 황사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봄철 우리나라를 뒤덮는 황사는 주의하지 않으면 피부, 기관지, 폐, 각막 등에 큰 손상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외출이 잦아지는 봄, 이에 대비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러지성 비염

집먼지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음식물 등 알러지성 비염의 유발인자는 수없이 많지만 봄은 특히 꽃가루나 황사로 인하여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괴로운 계절입니다. 황사철 알러지성 비염 환자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손을 비롯하여 콧속까지 여러 차례 씻어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체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각종 알러지 반응과 코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약재를 가미한 형개연교탕(荊芥蓮翹湯)을 투여하고 침치료를 병행합니다.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의 3대 증상은 기침, 천명(숨을 쉴 때 쉼쉼 또는 가랑가랑하는 소리가 나는 것), 호흡곤란 등으로 황사철에는 이 증상들이 모두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정화

와 습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황사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하면 도라지를 추천합니다. 도라지는 폐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가래를 삭히며,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고 폐와 코,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집에서 도라지차를 만들려면 도라지 16g을 물 3컵에 넣고 중간 불로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마시면 됩니다. 도라지 가루를 하루 4g씩 먹어도 좋습니다.

피부병

봄철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고 황사 등이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지고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로 외출 후에는 노출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화장을 하는 여성의 경우는 꼼꼼하게 클렌징 해주고 여러 차례 따뜻한 물로 씻어내어 모공 안에 침투한 유해 입자들도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건조를 막기 위해 세안 후 보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드름이 심하면 어성초 200g, 금은화 100g, 감초 4쪽을 깨끗이 씻어 생수 1l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냉장고에 보관해 아침, 저녁으로 스킨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황사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이 심해졌다면 감초차나 갈근차(칠퍼차)도 도움이 됩니다.

결막염

봄철 질환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복병 중 하나가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 눈이 매우 가렵고 충혈되며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고 여기에 끈끈한 분비물까지 나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 등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렌즈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눈을 자주 비비는 것보다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이거나 인공눈물로 씻어 내거나 눈썹 양쪽 끝과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지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춘곤증, 식욕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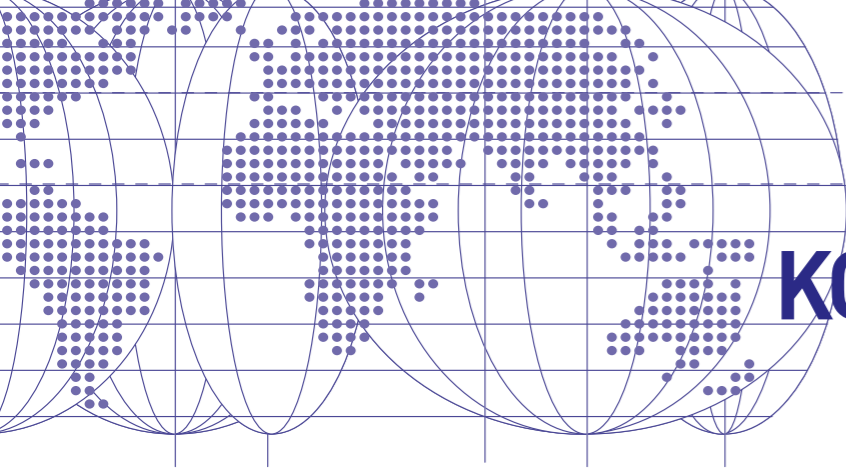
봄철 누구나 가벼운 춘곤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거나 입이 갈갈하고 입맛이 떨어져 식사생각이 없는 경우, 기력이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은 분들은 병원을 찾아 그에 맞는 약을 처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소생과 활력, 충동의 계절인 봄을 맞아 간 속에 있던 생기(木기운)가 간이 약하여 충분히 위로 올라오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봄보약’으로 불리는 체질별 한방보약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 땅에서 제철에 만날 수 있는 봄나물들도 도움이 됩니다. 냉이, 달래, 쑥, 봄동, 미나리 등 봄나물들에는 신

맛과 쓴맛이 있어 겨울을 지나며 떨어진 입맛을 돋워주고 간의 기를 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의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신체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더불어 평소 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인 운동으로 정기를 보강하고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제나 비타민음료 등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 등이 해마다 돌아오는 봄철의 변함 없는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황사 시 생활 주의 사항

1.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상청에 들어가 황사가 오는 날을 미리 점검해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2.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오염지수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로 자체적으로 환기를 시켜줍니다.
3. 실내온도와 습도조절에 신경 씁니다. 실내온도는 섭씨 20~22도 사이, 습도는 50% 정도로 건조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4. 외출하고 돌아오면 옷과 신발은 밖에서 털고 들어옵니다.
5. 외출 후 샤워는 따뜻한 물로 간단하게, 특히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 빨래는 가급적 집 안에서 말립니다.
7.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를 멀리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 토마토, 딸기, 신선한 녹색 채소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쌀겨, 참깨, 콩, 해바라기 씨앗 등의 음식을 많이 섭취합니다.



KOPEC NEWS

신성장사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플랜트본부 워크숍 개최



플랜트본부의 핵심사업인 EPC와 신성장사업 분위기 확산 및 매출향상을 위한 도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경기도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에서 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플랜트본부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플랜트본부 2010년도 목표,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수주전략, EPC 사업 추진계획, 신재생사업 추진방향, 2010년 사업수행계획 및 주요사항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하였다.

2010년 매출목표는 해외 EPC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개발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2,094억원을, 수주목표는 도전적 목표 설정 및 수주극대화 전략으로 전년도 실적대비 250% 증가한 7,006억원을 플랜트본부 내부목표로 설정하였다.

분임토의의 결과로는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하도급 확대에 의한 품질확보방안, 내부만족도 제고, EPC 활성화를 위한 준비절차 등이 논의되어 각 주관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플랜트본부 매출 및 수주확대에 대한 플랜트본부 전직원의 적극적인 도전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로설계개발단 2010년 사업개발 및 인력운용 워크숍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은 2월 10일 KT인재개발원에서 직위자 전원을 대상으로 2010년 사업개발 및 인력운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부서별로 사업개발 목표달성 전략과 인력운용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토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준석 단장은 전년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직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으며, 올해에도 EPC 사업확대 등 매출 및 영업이익 신장을 위해 전직위자가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가관리 교육 실시

전사적인 원가관리 의식의 내재화와 원가 의식 확산 교육 계획 중 제1차 사업관리 실무그룹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가관리 교육을 2월 2일 용인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전직원 원가관리 의식 내재화와 회사의 중장기 계획 달성 촉진을 위한 EPC사업 수행시 사업관리 역할 재정립 및 원가관리 세부 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각 본부별 사업행정업무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3월중에는 추가로 사업책임자그룹 및 사업개발 담당자그룹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IR 개최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기금 등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방문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 : IR)를 실시하였다. '한국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실시한 이번 방문 IR은 한국의 UAE 첫 원전 수출 이후 뜨거워진 원자력 테마에서 우리회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주식담당자인 이상환 차장과 원자력사업개발처 박범서 사업개발팀장이 참석하여 각각 회사일반과 원자력에 대한 설명을 맡았으며 19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국내최대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9개 기관,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R기간 내내 한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망, 원전 해외수출에서 KOPEC의 역할 등 우리회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방문 IR은 지난해 12월 14일 거래소 상장 이후 사내에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꾸준히 1:1 또는 그룹 미팅을 통한 상시 IR을 실시해 온데 이어, 수요기관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IR을 실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회사는 적정주가 확보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IR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 남호기 사장 초청 강연회 개최



플랜트본부에서는 2월 11일 한국남부발전 남호기 사장을 초청하여 "Think Different"(생각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사장은 한국남부발전 선진화 3030전략(30가지 생각을 바꾸면 30%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에 대해 설명하였고 사업수행시 우리회사 직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도전적인 사고로 임해 줄것을 주문하였다. 우리회사는 현재 한국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세계 최고 모델 발전소(삼척그린파워 1,2호기) 건설 설계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 TDR TOP과제(1차) 1단계 추진경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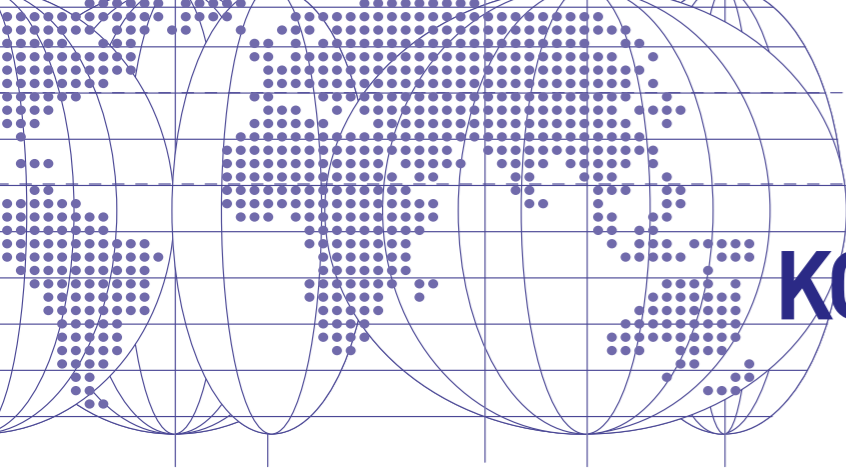
2010년 TDR 1차 TOP과제 2건에 대한 1단계 추진경과 보고회가 2월 11일 사장 및 경영진과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한기 인재개발원 설립, 운영 및 기자재 구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제에 대하여 과제팀장이 과제 추진목적, 추진전략, 기본계획(안) 및 기대효과 등을 경영진에 프리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 및 보완사항을 제시 받았다.

특히 원전 설계기술인력과 발전플랜트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목적으로 하는 한기 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과제에 대하여 경영진은 해외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참조한 교육커리큘럼 구축, 교육원 운영예산(정부지원 등) 전략수립의 필요성과 글로벌 교육체제에 대비 국·영문 교재 준비를 보완사항으로 지시하는 관심을 표명하고 세밀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보고된 1차 TOP과제 2건은 추후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신고리 3,4호기 협력사 대표자 간담회 실시

신고리 3,4사업은 2010년 상반기 일반설계업무 국내하도급 협력사 대표자 간담회를 1월 28일 용인 본사에서 개최하였다. 우리회사는 원자력본부장과 사업책임자 등이, 협력사 대표로는 삼익공영 서의석 사장 외 6개사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날 강선구 본부장은 UAE원전 수주와 신고리 3,4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사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설명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사업책임자의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 및 시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협력사별 협조요청사항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 상호 관심사를 교환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KOPEC NEWS

필리핀 전현직 국회의원 방문



필리핀 신규원전사업과 관련 Mark O. Cojuangco 등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2월 10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였다. 필리핀은 현재 만성적 전력부족으로 BNPP(Bataan Nuclear Power Plant) 사업재개 및 추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바탄원전사업 재개 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필리핀 정책입안자 등은 최근 매각 추진 중인 KEDO 기자재를 활용한 신규원전건설(OPR1000, 2기)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에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회사를 방문하였다. 회사는 설계 기술력과 OPR1000 모델의 안전성 및 기술성 등을 소개하였으며, 안승규 사장은 방문단과의 접견을 통해 KOPEC의 충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을 강조하고 필리핀 원전사업에 대한 우리회사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바탄원전사업 재개 법안의 발안자이자 이번 방문단 대표인 Mark O. Cojuangco 국회의원은 관심과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우리회사의 원전설계 기술자립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설계능력 그리고 최근 UAE 원전수주를 통한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 등 많은 정보를 얻은 유익한 방문 기회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 강연회 개최



플랜트사업개발처에서는 2월 10일 해외 EPC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Opportunities in Africa)'를 주제로 월드엑스존(The World X-Zone) 회장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 특별자문위원인 필립 윤(Philip Yun) 회장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필립 윤 회장은 아프리카 시장의 잠재성 및 중점진출 가능 국가들을 소개한 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진출 전략 및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전문가 초빙 강연회는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플랜트사업개발처에서는 세계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강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보안 교육 실시

'국내의 산업보안 환경 및 국내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보안교육이 1월 29일과 2월 4일 양일간 임원 및 각 처장, 실장, PM, 주요직위자, 팀장급, UAE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UAE원전 수주이후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보안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담당관이 보안의식제고 및 산업기밀 유출방지에 대해 강의하였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본사 스키/보드회 6차 행사 실시

본사 스키/보드회는 2월 20일 성우리조트로 6차 행사를 다녀왔다. 이날 회원들은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하여 눈덮인 설원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며 계절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본사 스키/보드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용평에서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1월과 2월 시즌 정기모임을 이어가며 회원간의 친목과 기량을 다지고 있다.

인사동정 (승급)

차장(책임급)

최보성[기계기술처]
임호재[원전기계측기술처]
이동호[설계전산화추진실]
임부택, 서영해[전력기술연구소]

과장(책임급)

이건호[품질안전환경처]
송태훈[원)토목건축기술처]
이남석[기계배관기술처]
김병래[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송명준, 박종철[원자로계통설계처]
김성준[기계설계처]

사우 애경사

결혼

- ▶ 배관기술처 조현행 차장 장녀 : 2월 20일 분당 만나교회
- ▶ 계측제어설계처 한상인 부장 장녀 : 2월 20일 안양 석수교회
- ▶ 원전기계측기술처 허진석 사원 : 2월 21일 대치동 더하우스
- ▶ 원전기계측기술처 나승욱 부장 장남 : 2월 28일 서울대 연구공원

부음

- ▶ 행정재무처 황선일 부장 모친 : 1월 24일 삼성의료원
- ▶ 플)토목건축기술처 유형모 차장 장모 : 1월 26일 서울아산병원
- ▶ 원자력사업개발처 고재일 팀장 부친 : 1월 31일 시흥시 신천연합병원
- ▶ 계측제어설계처 김재학 팀장 부친 : 2월 2일 부산의료원
- ▶ 원자로계통설계처 서영남 차장 시모 : 2월 7일 대전 을지병원
- ▶ 플)전기계측기술처 김일우 팀장 부친 : 2월 8일 울진군 울진의료원

동우회 동정 2010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기욱 회장은 회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축원하면서, 새해에도 동우회 발전에 협력하여 주길 바란다며 신년인사를 대신하였다.

산동우회 남한산성 올라

산동우회는 1월 23일 남한산성에서 신년산행을 하였다.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산행은 마천에서 출발하여 서문, 수어장대, 동문, 벌봉, 광주은고개로 하산하는데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눈이 많이 녹아 예상했던 빙판길은 그다지 없어 산행에 어려움은 없었다.

개업

장명상 : 2월 5일 인디안 노원점

부음

김윤영 모친 : 1월 5일 분당 서울대병원
조동철 부친 : 1월 8일 우리병원
이원식 장모 : 1월 20일 경북 구미산제일병원

- ▶ 전력기술연구소 노희영 차장 장인 : 2월 11일 인천 사랑병원
- ▶ 원자로계통설계처 송중호 부장 부친 : 2월 17일 대전 을지병원
- ▶ 플)토목건축기술처 강범석 팀장 모친 : 2월 18일 전북진안 동부병원
- ▶ 기계설계처 김정규 차장 모친 : 2월 19일 대전 을지병원

2월호 당첨자



숨은그림 팽이, 머리빗, 못, 돋보기, 사람옆얼굴, 비둘기, 생선뼈

■ 당첨자

이강우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신원정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임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손민재 / 원토목건축기술처 사원

■ 편집자에게

ISSUE 2010년 본부(단) 업무계획으로 우리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에 일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도 되었구요.

우안식 / 원토목건축기술처 사원

KOPEC 협력업체 소개기사는 원산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소개업체는 원산과도 연관이 많은 업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 게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입한 원산 신규 회원사이면서 KOPEC 협력업체로는 미래와 도전이 있더군요.

민경업 / 원산 기획조사실 과장

숨은그림 찾기



구성 : 임종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는 기분이 언짢을 때는 언사가 몹시 난폭했다한다. 한번은 장인인 오스트리아 황제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 읽고는 황후 마리 루이즈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는 주책망나니야"하였다. 황후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주책망나니라는 프랑스 말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 말을 예사로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후는 측근자에게 그 뜻을 물어 보았다. 질문을 받고 난 처해진 측근자는 생각 끝에 "예, 그 '가냘슈'란 말은 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언젠가 나폴레옹이 출타 중에 황후가 참의원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회의가 과열된 나머지 소란스러워지자 황후는 시종 장관인 칸바세레에게 사태의 수습을 부탁했다.

"이 중대한 혼란을 수습해 주세요. 당신이면 능히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냘슈' 이니까요."

위 그림 중에서 숨은그림(하트, 돋보기, 사탕, 장화, 안경, 화살표, 고래)을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매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 자 에 게

사보 「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PEC family」에 대한 의견제공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46-7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 전화 : 031-289-3023 / 팩스 : 031-289-4179 / 이메일 : flonei@kopec.co.kr

혁신&도전 · 고객중심&정직 · 전문성&탁월함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

목표를 향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도전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순간의 실낱 같은 흐트러짐에서 좌우됩니다.

외줄 위에서 외발자전거를 타는 도전자의 곳곳한 정신세계로 KOPEC 핵심가치 중 도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도전자 옆에서 튀어나오는 물고기는 수시로 자신을 괴롭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현재 KOPEC은 외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갑시다.

이준호 / 배관기술처 팀장